

연주자·청중
행복한 교감

“치루에서 걷다가 달에서 걷는 느낌이에요.”

지난해 12월 음악 동호회 ‘레미니스 하우스 콘서트’ 초청으로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이현경 예술 드림루트’에서 연주회를 가졌던 피아니스트 임미정씨는 정식 공연장이 아닌, 작은 공간에서의 책다른 공연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날 베토벤의 ‘열정’ 등을 연주한 임씨는 바로 코 앞에 자리를 잡고 앉은 40여명의 관객들과 행복한 음악적 교감을 나눴다.

하우스 콘서트가 뜬다

공연장 아닌 소박한 공간 만들어 연주회·문화 강좌

음향 시설 등이 완벽하게 갖춰진 정식 공연장은 아니지만 문화를 사랑하는 이들과 가까이서 호흡할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이 연주회 등 각종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런 공간들은 클래식 연주자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들이 작은 음악회를 여는 ‘하우스 콘서트’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지휘자 변욱(광신대) 교수는 지난해 10월 광주시 동구 동명동 동구노인 복지회관 인근에 ‘변욱 뮤직하우스’를 열었다.

30여평 규모의 뮤직하우스는 변 교수가 서재겸 음악실로 만든 공간. 그랜드 피아노 2대도 놓여 있으며 음향 시설도 갖추고 있다. 관객들은 의자와 바닥, 계단 등에 자유롭게 앉아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12월 피아니스트 박수영씨의 독주회가 진행됐으며

최첨단 오디오·비디오(AV) 기기 시연회도 열렸다. 박 씨는 “이런 작은 공간에서의 공연은 처음이지만 장소가 적당한 울림이 있어 연주하는 데 참 좋았다”며 “연주하는 사람이나 청중들이나 진심을 다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같아 행복했다”고 말했다.

변교수는 이 공간이 지역 음악인들과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문화적 감성을 나누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아직은 외부 연주 등으로 바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문화센터 등에서 ‘교향곡 해설’ 등 다양한 ‘음악강좌’를 열기도 했던 변 교수는 앞으로 문화 강좌 등도 진행해 볼 계획이다.

국악 그룹 ‘황토제’에서 기타 연주를 맡고 있는 피아노 조율사 전영규씨 역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작은 공간을 모색중이다.

광주문예회관 피아노 조율 등을 맡고 있는



작은 규모의 소박한 공간에서 열리는 하우스 콘서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변욱 뮤직하우스’에서 연주회를 앞두고 리허설 중인 박수영씨.

전 씨는 음악가들을 많이 만나면서 예술인들이 연주 공간에 목말라 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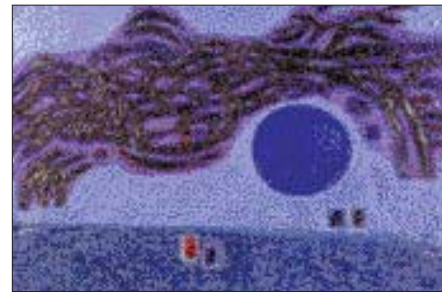
현재 담양의 폐교에 피아노 조율과 관련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전 씨는 광주에 소박한 공간을 만들어 연주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볼 계획이다.

지난 2004년 4월 레스토랑 ‘레미니스’에서 첫 연주회를 연 이후 22차례 하우스 콘서트를 열었던 ‘레미니스 하우스 콘서트’는 지난해 말 공연을 중단

1년 반만에 활동을 재개한 데 이어 올해는 적합한 장소를 찾아 2~3개월에 한번씩 꾸준히 콘서트를 열 계획이다.

또 봉선동의 ‘이현경의 예술 드림루트’ 역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콘서트 등을 열고 있으며 화가 황순철 씨는 광주 작업실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밖에 클래식 음악감상실 한울림은 올해부터 하우스 콘서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카페 공간을 갤러리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환기 작 '산월'



이중섭 작 '소'

신안 출신 화가 김환기 작품 ‘산월’
근대 문화재로 등록될 듯

문화재청, 박수근 ‘빨래터’ 등 하반기에 추천작 중 10점 선정

신안 출신 화가 김환기(1913~1974년)를 비롯해 박수근·이중섭·이인성 등 근대 미술 거장들의 작품이 근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근대 대표 미술 작품을 문화재로 등록해 국가가 보존을 돕기로 했다”며 “추천작 56점 중 10여 점을 가려 올 하반기에 선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환기의 ‘산월’(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박수근의 ‘빨래터’(개인), 이중섭의 ‘황소’(홍익대 미술관 소장), 이인성의 ‘경주의 산곡’ 구본웅의 ‘여인상’ 등이 유력한 작품들이다. 한국화는 변관식의 금강산 산수, 이상범의 한국적인 전원 풍경, 노수현의 산수 등이 추천됐다. 작가 1인당 많아도 3~4점까지만 후보작을 제한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께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회장 김영남 서울대 교수)에 용역을

의뢰, 4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와 문화재 등록 추천 작품 56점의 목록을 함께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서양화가 36점, 한국화는 20점이다.

작품 추천에는 문화재청 전문위원인 김현숙 박사, 권행가 박사(이상 홍익대 강사),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미술평론가 최열·원로 미술사가 이구열씨·미술평론가 오광수씨, 윤범모 동국대 교수 등이 자문과 감수를 맡았다.

근대 등록문화재는 국보나 보물처럼 국가가 강제 관리하는 게 아니다. 등록에는 소장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관리 상황이나 소장자의 변동 등을 문화재청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매 거래가 자유롭다. 다만 국가에 신청하면, 작품의 보존·수복 비용을 지원해준다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강흔모 사무관은 “근대 미술품의 지위가 높아지고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보존할 것”이라면서 “작품 선정 과정의 불공정 시비 등을 없애기 위해 학계·미술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광복기자 kroh@

해서·전서 등 다양한 서체 한자리에

‘연우회’ 서예전 메트로갤러리 23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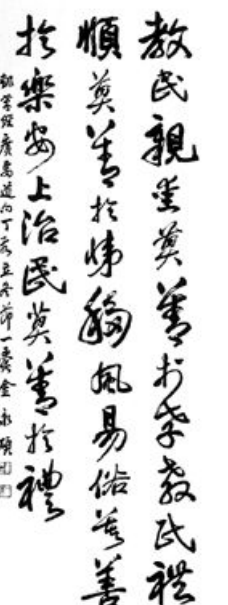
해서·전서·예서·초서·행서·한글 등 붓끝을 떠나 힘차게 뻗어나간 다양한 글씨체를 한자리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예가인 화정 이돈홍씨로부터 서예를 배운 제자들의 모임인 ‘연우회’(회장 김영석)가 17~23일까지 광주메트로갤러리에서 ‘제31회 연우회 서예전’을 연다.

정체색씨가 해서, 오명섭씨 전서, 이순호씨 예서, 양소열씨 초서, 강영희씨 행서, 최정근씨 한글 등 132명의 회원이 134점의 작품을 통해 다채로운 글씨체를 선보인다.

지난 1975년 발족한 연우회는 1977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광주, 대구, 부산, 진주, 중국 등에서 순회전을 했다. 문의 062-226-8056.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김명석 작

금남공원 문화지킴이 ‘광장’ 순천 나들이

19일 주암호서 ‘풍경 콘서트’

문화 지킴이 ‘광장’(대표 정찬경·사진)은 매월 한차례씩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한국은행 자리에 위치한 금남공원에서 ‘광장 음악회’를 열어왔다. 추운 날씨 때문에 잠시 공연을 중단했던 광장이 19일 오후 5시30분 순천 주암호 자락에 위치한 정음주(입양인 연대 대표)씨 집인 ‘풍경’에서 ‘풍경 하우스 콘서트’를 갖는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소프라노 이화희·노연선, 테너 김백호, 바리톤 정찬경씨 등이 참여하며 첼리스트 김창현씨, 피아노의 박지



현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레퍼토리는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의 주제곡, 팝송 ‘A love until the end of the time’, 오페라 ‘자니 스키기’ 중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가요 ‘향수’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떡국과 간단한 술자리도 마련되며 원하는 사람은 숙박도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 카페(cafe.daum.net/piazza21)나 전화(062-655-3522)로 꼭 사전 신청해야 한다. /김미은기자 mekim@

시인 황지우 ‘문화 미적 술어’

광주 시민문화회서 특강

해남 출신 시인 황지우(사진)한국종합예술학교 총장이 18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차광동 시민문화회의(5·18기념회관 맞은편)에서 ‘우리 문화의 새로운 미적 술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떡국과 간단한 술자리도 마련되며 원하는 사람은 숙박도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 카페(cafe.daum.net/piazza21)나 전화(062-655-3522)로 꼭 사전 신청해야 한다. /김미은기자 mekim@



emlee@kwangju.co.kr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한국문화원형총서 만든다

한국문화원형총서(KOCCA)는 김영사와 손잡고 향후 5년간 100권 규모의 한국문화원형총서(가제)를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순차적으로 발간될 한국문화원형총서에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우리나라의 의식주, 의례, 신앙, 역사, 예술, 과학기술, 건축 등의 전통문화와 관련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국어판 출간과 함께 영어 및 주요 외국어판도 순차적으로 간행할 계획이라고 KOCCA는 덧붙였다. /연필뉴스



영화보다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역사거리 ☎예매1544-0600

1관 무방비 도시 (15세)	최고급관
2관 스위니 토드-어느 전설적인 범죄 이야기 (18세)	
3관 미스트 (15세)	
4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제)/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	
5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제)	
6관 에어리언vs프레데터2 (15세)	
7관 어린왕자 (12세)	
8관	
9관 뜨거운 것이 좋아 (15세)	

광주점 무료관객 행사가 종료됐습니다.
• 이프유 주자장 아메리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게 한함) • 2시간 30분 초저가 정상품 유료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엔터 시네마
총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스위니 토드 (18세)	
2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	
3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제)	
4관 무방비도시 (15세)	
5관 뜨거운 것이 좋아 (15세)	
6관 아메리칸갱스터(18세)/7리더리더(15세)	
7관 에어리언vs프레데터2 (15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실내-옥외 주차장 300대 *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환호시름 영화시청 • 예매: www.joycoco.com / 1588-7941

컬럼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아트시어) 해남점 (무역회관 맞은편)

1관 꿀벌대소동/어린왕자(12세)	
2관 어린왕자(12세)/황금나침반 (전제)	
3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무방비도시(15세)	
4관 무방비 도시 (15세)	
5관 스위니 토드 (18세)	
6관 에어리언vs프레데터2 (15세)	
7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제)	
8관 미스트 (15세)	
9관 뜨거운 것이 좋아 (15세)	
10관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 (전제)	

* 호남 최대 주차장 * 예매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성명연결 방문 (1인당 2인) → 2인

색깔있는 영화시청 • www.cinusc.co.kr /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전소 건너편 ☎ 511-1000

1관 무방비도시 (15세)	
2관 어린왕자(12세)/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제)	
3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15세)	
4관 미스트 (15세)	
5관 꿀벌대소동 (전제)/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	
6관 뜨거운 것이 좋아 (15세)	
7관 스위니 토드 (18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세너스북사 사무(오전9시~오후9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즐거움이 가득 • www.mc12.co.kr / 1588-9101

무등극장
총장로 1가 ☎ 232-9106

1관 미스트 (15세)	
2관 어린왕자 (12세)	
3관 무방비도시 (15세)	
4관 스위니 토드 (18세)	
5관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 (전제)	
6관 에어리언vs프레데터2 (15세)	
7관 꿀벌대소동 (전제)/색즉시공2 (18세)	
8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내셔널트러스트 (12세)	
9관 뜨거운 것이 좋아 (15세)	

• 리바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암) 3시간 무료주차
• 관람객 체안을 위한 전용휴구 마련
• 편의에의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세로운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lldinema.co.kr

제일 시네마
총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무방비도시 (15세)	
2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15세)	
3관 스위니 토드 (18세)	
4관 뜨거운 것이 좋아 (15세)	
5관 어린왕자 (12세)	
6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색즉시공2 (18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